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94 청지기 훈련 실시

4월 7일(목)~5월 27일(금), 기도원에서 8차에 걸쳐
전 직분자와 일반 성도중 희망자 대상으로

교회는 1994년도 청지기훈련을 오는 4월 7일(목)부터 5월 27일(금)까지 8차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교회직원)과 일반 성도 중 청지기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지기훈련은 전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교회의 목표와 사명, 각자의 사명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금년은 당회장 목회지침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94청지기훈련을 앞두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안에서 하나되어 성장하라'는 아름다운 부탁을 받았습시다. 청지기훈련의 목적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공동체 회복을 통한 교회배가와 민족복음화에 앞장서는 온전한 제자로서 헌신케 하는데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 군인에게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그동안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직분자 전원이 빠짐없이 청지기훈련에 참가하여 더욱 성숙하고 정예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부탁했다.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 집합하여 기도원으로 가서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 본 훈련은 직분자는 반드시 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1995년도 직분자 임명은 신입훈련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훈련참가 신청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교육국 103호에서 접수한다. 등록비는 6,000원(훈련비는 별도 판매)이며 신청일자는 1994년 3월 20일(주일)부터이다.

각 교구별 훈련일자 및 청지기훈련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교구별 훈련일자

- 1차 : 4월 7, 8일 - 1, 2, 3교구
- 2차 : 4월 14, 15일 - 4, 5, 6교구
- 3차 : 4월 21, 22일 - 7, 8, 9교구
- 4차 : 4월 28, 29일 - 10, 11, 12교구
- 5차 : 5월 5, 6일 - 13, 14, 15교구
- 6차 : 5월 12, 13일 - 16, 17, 18교구
- 7차 : 5월 19, 20일 - 19, 20, 21교구
- 8차 : 5월 26, 27일 - 22, 23교구, 미참석자

◆ 훈련시간표

- 첫째날
오후 6:30까지 교회집합
- 6:30 - 7:10 (40분) 저녁식사, 명찰
훈련복 지급
- 7:10 - 7:30 (20분) 인원점검,
오리엔테이션
- 7:30 - 07:40 (10분) 승차 및 출발
- 7:40 - 08:40 (60분) 기도원 도착
- 8:40 - 09:00 (20분) 숙소배정,
정리정돈
- 9:00 - 09:20 (20분) 영감의 찬양
- 9:20 - 11:00 (100분) 저녁집회
(정삼지 목사)
- 11:00 - 11:50 (50분) 산상 기도훈련
(유창무 목사)
- 11:50 - 12:10 (20분) 세면 및 취침 준비

*훈련복 갈아 입는 곳 -

남자 : 베다니홀,
여자 : 베들레헴홀

· 둘째날

- 오전
- 5:20 - 5:30 (10분) 기상 및 세면
- 5:30 - 6:30 (60분) 새벽집회
(장삼지 목사)
- 6:30 - 7:00 (30분) 아침제조
- 7:00 - 7:10 (10분) 휴식
- 7:10 - 8:00 (50분) 아침식사
(성구 암송후)
- 8:00 - 9:00 (60분) 조별로 성경읽기
(누가복음)
- 9:00 - 9:30 (30분) 영감의 찬양
- 9:30 - 10:30 (60분) 전체특강(1)
- 장봉생 목사 '직분자의 헌신과 섬김'
- 10:30 - 11:30 (60분) 조별로 성경읽기
(사도행전)
- 11:30 - 12:00 (30분) 휴식
- 오후
- 12:00 - 1:00 (60분) 점심식사
(성구 암송후)
- 1:00 - 2:00 (60분) 공동체 훈련
- 2:00 - 3:00 (60분) 특강(2)
- 각 교구별 지도교역자
'개인의 영적성장과 교구의 부흥'
- 3:00 - 3:20 (20분) 영감의 찬양
- 3:20 - 4:00 (40분) 당회장목사와 대화
- 4:00 - 4:10 (10분) 기념 사진 촬영
- 4:10 - 4:30 (20분) 수료식
- 4:30 - 4:40 (10분) 숙소 정리 및 출발

1994년도 2차

학습 · 세례식 및 성찬식

1994년도 제2차 학습 · 세례식 및 성찬식은 다음 주간 중에 거행된다. 학습 · 세례식은 3월 25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거행되는데 이를 위한 문답과 예비교육이 3월 24일(목) 오후 7시부터 교육관 307호실에서 열리게 된다.

또한 성찬식도 3월 27일 주일에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 거행된다. 학습 ·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오늘(20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업인 선교회 조찬기도회

우리 교회 실업인 선교회에서는 1994년도를 '실업인 선교회 도약의 해'로 삼고 회원배가 운동 및 각종 복음전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24일(목) 오전 7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4층 에메랄드홀에서 실업인 선교회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예배 및 특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실업인 선교회는 충현교회에 다니며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의 자격이 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실업인 선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모집

교육국에서는 충현교회 정교사(교사양성부 수료생, 또는 교회가 정교사로 인정하여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 자격증 소지자 중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국(교육관 103호, 전화 552-8200, 교환 505번)으로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식당에서는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들의 식당 이용시 반드시 명찰을 달아서 교회학교 교사임을 표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사랑부 교사, 학부모 세미나

교회학교 사랑부는 다음 주일(3월 27일) 저녁 찬양예배 후(오후 6시 30분) 사랑부실(교육관 109호)에서 사랑부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주제는 악물오용과 남용 및 예방대책이다.

공동의회 소집공고

일시 : 1994. 3. 20. IV예배 후
장소 : 본당
안건 : 제28대 장로투표
대상 :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



▲ 기도원에서 모였던 청지기훈련의 한때

자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를 든다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비판하려고만 하면 안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지혜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의 비교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talent)인데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달란트는 금화, 즉 돈의 단위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그리고 기회의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16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는 말은 그도 바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을 때 기다리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습니 다.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며 주저했습니다. 두려워서 땅에 묻어 두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 그는 게으르고, 회피주의자이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작게 받은 것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그 마음 깊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고 머리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없는 재능을 억지로 하려고 부담감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2. 충성한 자들이 받는 복과 불충성한 자들이 받는 심판

충성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인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 주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을, 선의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넷째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충성이란 한 자어 그대로 중심(忠)으로 팔팔을 이루어가는 것(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면 충성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주인이 인정을 해줍니다. 둘째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셋째는 주인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했습니다. 큰 일을 맡겨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충성한 자는 주인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충성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29, 30절을 보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둘째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 바로 지옥에 갑니다. 셋째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불충성의

충헌강단



달란트 비유

(마 25:14-3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한 자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3. 충성된 자가 되려면

첫째로 먼저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소위 주체파학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인의 마음에 들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교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셋째로 분량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주면 한 달란트 만큼 최선을 다해 충성하세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받은 만큼 더욱 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능력에 따라서 최선만 다하면 마지막에 받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메달을 딸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은메달을 딸 으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메달을 딸 다 할지라도 그가 충성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금메달 딸 사람과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것이 천국계산의 원리입니다.

4. 달란트비유의 교훈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기회에든지 어떤 능력에든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관리자)이어서 소유자가 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다도 청지기의 5대 원리를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청지기의 5대 원리는 소유권의 원리(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 점유권의 원리(우리는 맡김을 받은 관리자임), 분배권의 원리(하나님은 그의 뜻과 지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심), 활용의 원리(충성이라는 것은 준 것을 활용하는 것임), 청산권의 원리(주님은 마지막 때에 회계하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 재능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되어 그것을 활용했는가 하는 충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둘째로 죄악된 일을 하는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것도 나쁜 죄입니다.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지 안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서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는 것, 죄를 저지르는 것도

무섭지만 안하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 안하는 것도 죄이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죄이고, 전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충성하지 않는 것

도 죄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당장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계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번 나라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타국에 갔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 내에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버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마지막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충성한 것, 그대로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믿고 중생하고 변화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1의 성품입니다. 쉽게 마음을 드리면 사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중생한 뒤에도 성격이 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급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급했습니다. 이렇게 제일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의 인정,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잔치에 초대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게으른자는 아닌가? 나는 불충성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과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은 마지막에 회계하는 분이신데 주님이 계산할 때에 내가 적자 인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부지런히 이를 남겨서 우리는 혹 자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날에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베푸시실 즐거움의 잔치에 다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경



사람들은 멋으로 안경을 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거나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쓴다. 특별히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경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어떠한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의 색깔도 달라진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인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 인간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라디오(메아)교회를 '영적 안경'을 사서 비로거나 온갖을 초월 안경이다. 성경은 우리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고 교양시켜주는 영적 안경으로 안경이다. 나는 성경이란 안경을 통해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천리도 본다.

글 / 신성종 목사

바 위

변 준 옥

(전도사, 출판국부지도, 탁아부지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한점한점 잘라먹곤
헛트림을 하며 비를 토해냈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거부의 몸짓 마저 유린당한 채
구름이 토해낸 장대비를 온 몸으로 받아내며
바위는 아파야 했습니다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먹어대고
헛트림을 계속하며
또 그렇게 비를 토해냈습니다

차라리 두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안으로 안으로만 눈물을 삭이며
바위는 마냥 아파야 했습니다

먼 먼 훗날
바람의 심술이 전설처럼 흩어지고
구름의 허세 마저 한풀 꺾이던 미명에
바위는
제 맥박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구름이 잘라먹은 상처에는
어느새 파란 새살이 돋고
하늘엔
금실 같은 햇살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거칠었던 제 모습이 어떻게 변했으며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들이 제 것인 줄도 모르면서
바위는
온 몸을 보듬고 있는 따스한 햇살에 기대 누워
별써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 들고 있었습니다

● 징검다리 ●

사랑의 생일잔치

박 정 규

(목사, 제6교구, 제18교구, 새가정부 지도)

제가 우리 교회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아 경노심방을 시작하여 어느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자녀없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저에 대한 것을 주간중헌의 지면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시고 부족한 교구의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구역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사님의 기도에 감사하여 친 할머님과 어머니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 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구 목사로서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의 권사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은 몇년 동안 계속하여 자기 자녀들은 배스를 타고 가게하고 택시, 승용차, 용달차로 권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소망부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집까지 모시고 돌아오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식사 및 반찬과 빨래와 집안청소까지 구역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원하여 돌보면서 때를 따라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사님의 생신이라고 감사예배를 드려달라는 구역장님의 연락을 받고 권사님댁에 가서 생신감사예배를 드리고 나자 모든 구역원들이 자기 집에서 있는 음식솥뚜껑을 다 열어 친부모님의 생신상이라도 더 이상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진수성찬의 생신상이 들어와 다시 한번 큰 감격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 세상에 자녀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동행과 딸들 같은 사랑의 구역원들이 있는 한 외롭지 않고 날마다 사랑의 체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권사님이 더욱 더 강건하셔서 계속하여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구역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소망하고, 구역원들은 계속하여 권사님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계속되어져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소망합니다.

· 이 논문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는 논문입니다.

◆ 새가족양육위원회가 되고서 ◆

새가족과 하나되어

이진규

(집사, 새가족위원회 행정위원)

먼저 이글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가족위원회에서는 1993년 1월 이후에 충현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명단을 찾아서 분류 작업에 들어가 몇 가지 구분을 하게 되었다. 첫째는 새가족부에서 6개월 코스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 분들, 두번째는 통신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 세번째는 등록후 출석이 없는 분과 가끔 출석을 하시는 분들로 구분을 하게 되었다. 그외에 남녀의 구분, 연령별, 교구별, 구역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이때에 또 확인하는 것이 인도자였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지만 10명중 7명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 등록만 시켜 놓았던 분들이 거의가 교육도 회피하고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분류 작업에서 1993년도에 충현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3000명이란 숫자가 확인이 되었지만 잘 양육받고 있는 새가족은 500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도자 중에는 이진규라는 이름도 가끔 보이지만 거의가 잘 나오지 않는 새가족의 명단에 속하고 있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의 책망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좀더 새가족에게 관심을 두고 심방이라도 하였으면 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다. 등록만 시키면 충현교회의 식구가 된다는 단일한 생각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이 결과를 보니 참으로 할 말이 없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다른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양육위원을 엄선하여 위의 분류된 자 중 세번째의 새가족을 한 양육위원에게 5명 정도를 맡겨 그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새가족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양육위원은 제1차 교육, 제2차, 제3차로 나누어 교육을 받게 되며 이미 정기코스인 제2차 교육이 완료되고 카드를 배당받은 양육위원들은 열심히 전화로 심방하며 주일 출석시에 교회 앞뜰에서 만남의 장소를 정하여 충현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랑나눔기, 잃어버린 새가족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등록을 한 경우 양육위원인 여자 집사님이 전화로 남편의 이름을 찾을 경우, 상대는 당황 또는 변명하여 남편과 충현교회 양육위원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며 여러 가지 기분나쁜 말로서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이 때 양육위원 자신이 시험받기도 하며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낙심에 빠지기도 한다. 양육위원들은 새가족에게 전화나 직접 상면시 그냥 내 기분에 휩싸여 그들과 접촉하면 틀림없이 위의 예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기도하고 접하면 좋을 것이다.

또 양육위원은 새가족을 맞이할 때 나의 친형제, 친자매를 다시 얻는 각오가 아니면 그냥 형제에 지나쳐 버리게 된다. 현대인에게는 사랑의 결핍증이 걸려서 무엇인가 탈피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기가 바라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자기 부모님은 불교를 믿는데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야 한다. 충현교회가 너무 넓어서 주일에 한번 정도만 왔다가고 다시 오면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때 인도자나 안내자가 따뜻하고 다정한 친구의 모습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찬바람을 얼굴에 맞는 것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인도자 안내자, 그리고 목사님들의 반가운 인사라면 우리 충현교회의 문턱이 그리 높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새가족들은 몇 주는 출석하지만 그 다음은 타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예배시에 성경과 찬송을 찾고 있는데 이미 성경봉독과 찬송이 끝나 나므로 또 한번 소외를 느끼게 된다. 우리 충현의 식구들은 밖에서도 새가족을 잘 보살펴야 하지만 교회의 예배시에도 열 좌석에 새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면 도울 것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 일에 충현교회 전 교인이 관심을 안 보이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선포하여도 새가족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새가족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단과 사탄들이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하고 확신있는 충현의 식구들에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의

선교일기

12월 7일(화)

오전 6시 5분 머르빠미(MNA) 편으로 헝가리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하여 수라바야, 우중판당, 비악을 경유하여 현지 시간 오후 6시 25분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자야프라의 센타니(SENTANI) 공항에 도착했다.

12월 8일(수)

차량을 대절(1일 Rp. 25,000) 자야프라 소재 교육청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시설 경과와 8월 개교 예정을 보고 외국인 교사 처청 가능확약을 받았다.

이번 순회의 사역지인 4개의 촌락과 1개의 성경학교에 공급할 항생제 등의 약품을 구입, 5개의 상자에 등분 포장했다. 오후에는 센타니 소재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단 총회와 툴리 지역 교회를 개척한 RBMU 선교회를 방문, 비자 연장의 불가로 철수단계에 있는 고층과 사역 계승에 대하여 협의했다. 동 선교회는 1970년대

부터 다니족을 위하여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며, 활주로로 담고 경비행기를 운영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교회를 설립(인도네시아 복음주의 교단)한 선교단체다. 현재 의사, 간호원, 조종사 등 17세대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으나 정부의 비자 정책에 의하여 연장이 불가능한 선교사들은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동선교회는 현지의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이 사역의 계승을 바라고 있었다.

12월 9일(목)

지난 밤에 심한 폭우와 뇌성으로 6시에 이륙할 예정이던 전세기를 8시에 탑승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수리 후 다시 탑승, 1시간 반 동안을 구름 사이에서 돌며 피하여 시달리다가 강기때 촌락에 드디어 안착했다. 추장, 교회대표, 교사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숙소로 가서 짐을 풀었다.

* 교회 및 촌락지도자 연석회의(14:30 - 21:30)

88년부터 전도사를 파송하여 개척 중인 아솔라기마(ASOLAGIMA) 개척교회건축을 준공을 위한 건축비보조 청원(Rp. 2,912,000)과 개척교회 지원비(현재 월 Rp. 10,000) 청원, 청소년 세미나 개최 위한 강사 및 비용 Rp. 840,000 청원, 9개 진료소에 약품 지원 청원, 매년 최소한 1회 이상 순회집회 청원.

12월 10일(금)

연합집회를 하다.
오전집회 10:30 - 13:00 인근 31개 교회로부터 300여명이 모임

오후집회 13:30 - 15:20 날씨 호려 어두워지고, 80Kg 짜리 돼지구이가 다 익어 집회를 마치고 큰 잔치를 시작했다. 땅을 파고 돌에 달구어 익힌 고구마 줄기, 파파야잎, 돼지고기 등 푸짐한 잔치를 베풀었다.

12월 11일(토)

빗소리가 조용해지는가 했더니 각색 새들이 지저귀며 날이 밝아온다. 조반을 마치고 기도 전에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4개의 박

스에 가득한 약품과 순회용품들 싣고 계곡과 산을 넘어 구름을 피하며 마트에 안착했다. 활과 창을 든 전사들이 도열해 있다. 교회대표의 안내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한 때의 청년들이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비행기 주위를 돈다. 조종사가 혼비백산하여 비행기에 탑승, 문을 닫는다. 전사들이 도열한 사이로 추장과 함께 숙소로 들어갔다. 돼지구이에 석탄가루를 발라 단장을 한 것이라 내 손도 곧 번들 거린다.

이 지역은 14개의 촌락에 1만 2천명의 주민, 43개의 교회가 있고 8천명의 수세자가 있다. 작년에는 장년만 100여명이 말라리아에 희생되었고, 금년에는 42명, 유아(2세 미만 및 태아)가 50여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면장과 함께 보건소, 성경학교, 촌락 등을 살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200여명이 모였다.

*연석회의(교회대표, 성경학교, 보건소)

선교지에서 온 소식



1) 보건 - 유아사망률이 심각하다. 말라리아, 콜레라, 유행성 유행병, 기생충, 영양실조 등으로 연간 수백명이 희생되고 있다. 촌락간 거리가 도

보로 최소한 3-4시간 걸리므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다. 현미경은 있으나 기사가 없어 실험실 운영을 못하고 있다. 보건소 건물은 14년 전에 지었으나 지금까지 의사는 한명도 주재한 일이 없다. 의사가 안되면 약품과 간호사라도 지원 요청.

2) 교육 - 문맹퇴치 교사, 국민학교, 신학 후보생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3) 전도 - 기도원 8 x 5m 5동, 지붕 위한 합석지원(Rp. 3,000,000) 요청. 10개의 개척지 사역자 생활비로 월 Rp. 2,000, 특수지 Rp. 8,000를 지급 중인데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월 Rp. 20,000 정도)

12월 12일(주일)

주일예배(09:00 - 11:30) 우중판당에도 400여명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밖에선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비 내리는 소음 때문에 강대를 교회당 중앙으로 옮겨 놓고 집회를 했다. 오후에는 지역지도자 및 교사 연석회의 - 마라나타 성경학교(SAM)학생 72명, 교사 7명, 3년제 성경학교로서 수업료는 년 Rp. 25,000, 교구 및 의약품 원 청원(Rp. 2,710,000)

12월 13일(월)

1) 연합예배(15:00 - 18:30) 마침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2) 연석회의(19:30 - 23:30) 동 지역은 RBMU 선교사역의 중심지로서 100명이 활동했던 곳이다. 그러나 86년부터 선교사가 완전 철수를 하였고 92년 이래로는 순회방문까지도 그치게 되었다. 발전시설은 기관고장, 관리불능으로 폐기상태에 있고 의료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 상주할 의사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상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2개월씩이라도 방문하여 진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12월 14일(화)

전세기가 약속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도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형인 목사 : 20일(주일)~21일(월) 케냐 한인연합집회 인도, 22일(화), 25일(금) 케냐 현지 사역자 세미나
· 신성종 목사 : 21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22일(화) 군목후보생 수련회 개회예배 설교 및 특강, 25일(금) 대구, 경북 지역 국가 조찬기도회 설교
2. 새가족교육의 활성화로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3. 주간성경공부를 통해 바른 신앙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 제2교육관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5.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6. 사회,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착, 6시 45분 우난에 도착했다. 교회대표, 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국민학교를 방문,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했다. 전교생이 120명.

1) 연합집회(09:00 - 11:30) 집회가 끝나도 흩어지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통돼지구이를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2) 연석회의(13:00 - 15:30) 2명의 교사 채용을 위한 봉급 지원 요청, 활주로 확장공사를 위한 지원요청(Rp. 3,000,000)

12월 15일(수)

밤새 내린 비가 아침에도 그치지 않아 8시에 약속한 전세기가 12시가 지나서야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 13:05 와메나 도착, 항공선교회에서 센타니(자야푸라)행 표를 예약하고 군 교육청 책임자를 만났다. 14:30 이륙 15:25 센타니 도착, RBMU 선교회장 제임스 목사님과 앞으로의 사업 협의를 했다.

12월 16일(목)

순회지역의 모든 청원사항 정리, 보고서 작성,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총회, RBMU 선교부, 야쿠미(YAKUMI) 전도단 등에 보고서를 발송했다.

12월 17일(금)

자카르타 시간 3시에 산테니 공항에 수속, 비악(BIAK), 우중판당(UJUNG PANDANG), 수라바야(SURABAYA) 경유 15시 25분 자카르타 공항 도착, 10일간의 순회 모두를 마쳤다.

(아시아의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리안 자야의 툴리지역을 12월 7일(화)부터 17일(금)까지 순회하면서 적은 일기입니다.)

신성종 목사 설교집 두 권 출간

지난 3월 5일 신성종 목사의 설교집 두 권이 충청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다. 「그 땅을 고칠지라」는 주일 설교집으로 I집인 「능히 이기리라」에 이어 주일 아침예배에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묶은 것이며,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지난 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요예배 때 강해해온 것 중에 우선 10장까지의 설교들을 정리하여 그대로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1. 미화직 : 남 O 명
심신이 건강한 40대 남성
2. 사무직 : 남 O 명
총무과 업무담당자,
P/C 활용 가능자,
운전1종 면허 소지자

* 각항 공히 세례교인이여야 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세례증명서, 당회장추천서(타교인에 해당)

· 제출처 : 중헌교회 사무국
(Tel 552-8200(교 402))

묶은 것이다.

이 설교집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들을 그대로 정리하여 묶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며, 설교를 직접 들을 때의 생생한 은혜와 감동이 독자들에게 거의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 강해설교(상)」은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 목회자세미나의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목회일선에서 목양에 노심초사하는 교역자들이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신학생들은 물론이고, 복음서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님을 깊이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자료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 땅을 고칠지라」(252p, 4,500원, 충청출판사)

「마태복음 강해설교(상)」(420p, 6,500원, 충청출판사)

